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운수·창고, 숙박·음식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2023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5.3%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2%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4%), 승용차 등 내구재(4.6%), 의복 등 준내구재(3.5%)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5.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0%)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3%)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7%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6.0%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8.5%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2월	1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1.5	0.1(-1.3)	0.3(2.9)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2.0	2.4(-13.0)	-3.2(-8.1)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2.1	2.7(-13.6)	-3.1(-8.2)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8.0	4.9(3.7)	6.0(22.4)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1.1	-0.5(4.8)	0.7(7.2)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5	-1.1(-0.9)	5.3(-0.8)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3.7	-2.5(-4.9)	0.2(5.7)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7	0.3(4.8)	0.2(4.2)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3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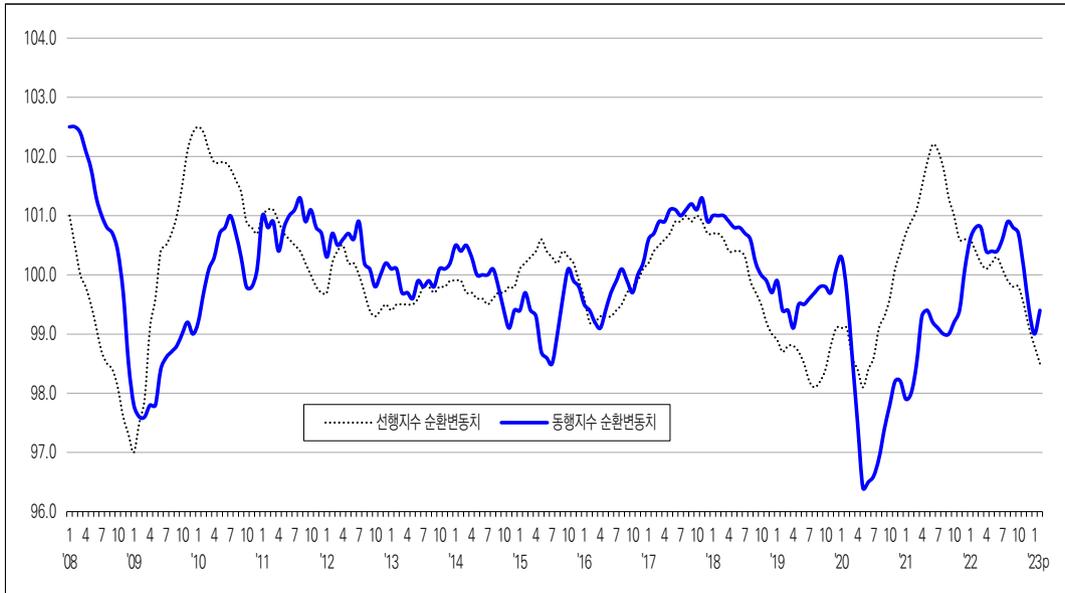
○ 2023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100)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대비 음식·숙박(0.8%), 식료품·비주류음료(0.4%), 교육(0.6%), 기타 상품·서비스(0.4%), 의류·신발(0.3%), 오락·문화(0.2%), 주류·담배(0.1%)는 상승, 통신,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교통(-0.4%), 주택·수도·전기·연료(-0.3%)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5%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함.

◆ 2023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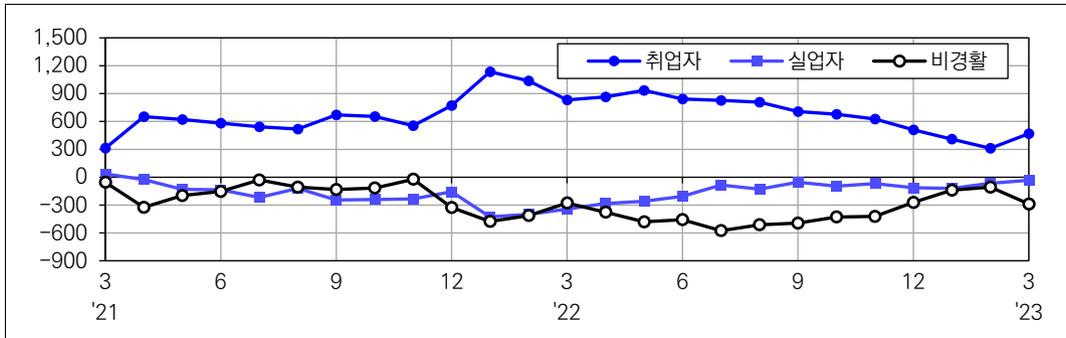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 2023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전월대비¹⁾ 9만 4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3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금융보험에서 증가 전환됨.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3월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운수창고 및 사회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20대는 정보통신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5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업에서는 감소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3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전환됨.
- (일시휴직자) 3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30만 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2월 -5만 5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3만 3천 명 감소함.
- (실업자) 3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2월 -6만 4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3만 9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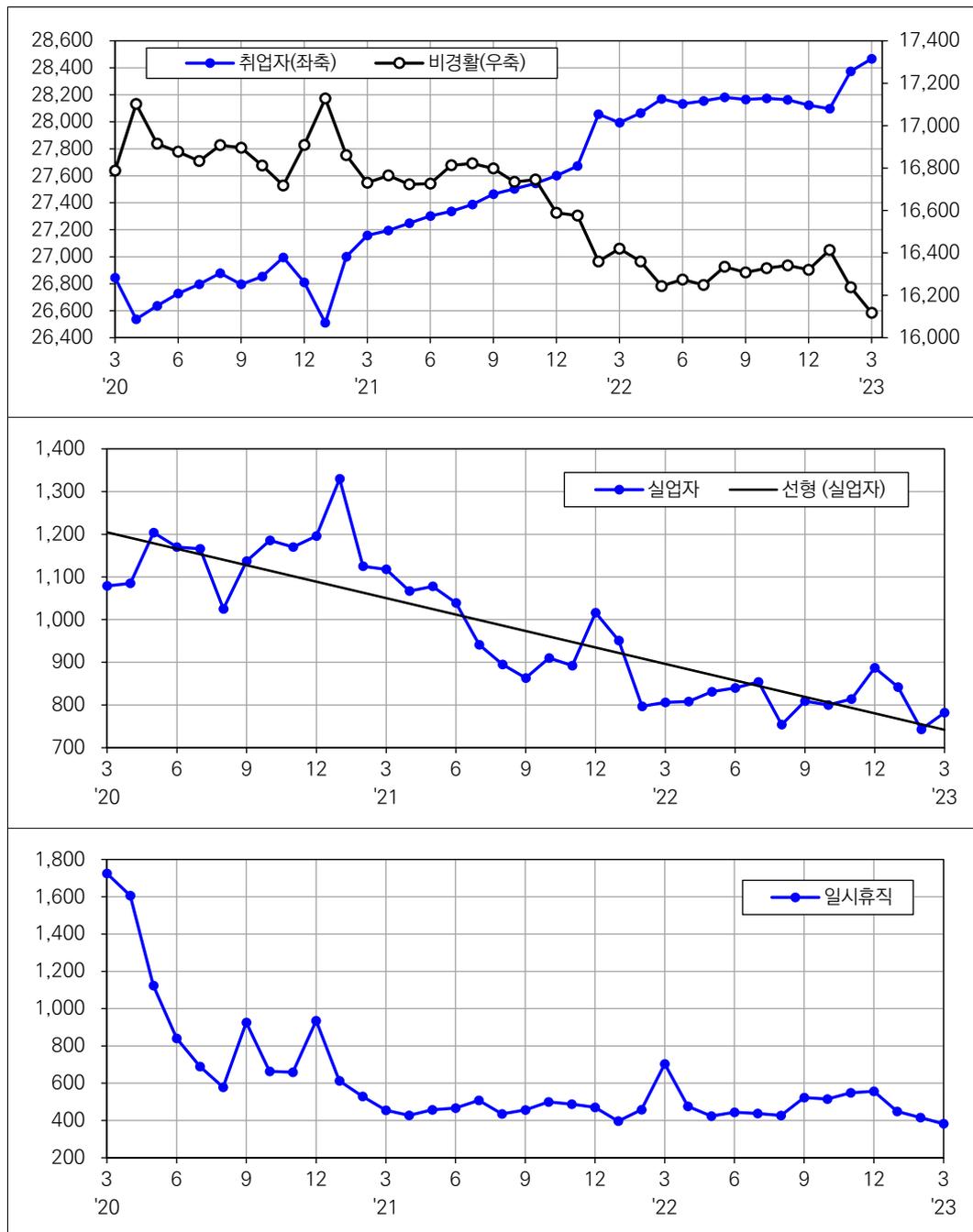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3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정보통신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 전환됨. 반면 제조업 및 사업관리지원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되고 보건복지에서는 감소 전환됨. 5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업에서 감소 전환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운수창고 및 사회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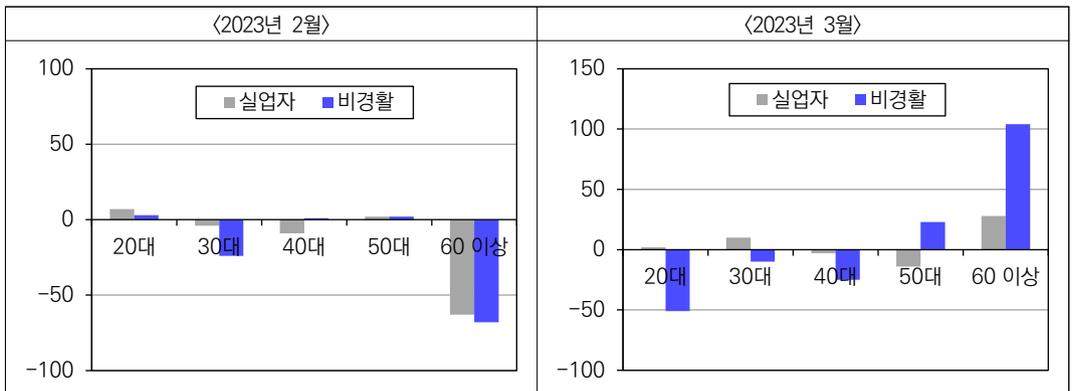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8	-31	-3	(17)	-43	-94	-86	(34)	17	24	24	(-4)
실업자	-6	-9	-11	(-3)	0	5	2	(2)	0	6	20	(10)
비경활	9	40	20	(-13)	-142	-101	-104	(-51)	-123	-130	-137	(-10)
실업률	-2.0	-2.6	-5.1	(-2.2)	0.1	0.3	0.2	(0.0)	0.0	0.1	0.4	(0.2)
고용률	-0.3	-1.3	-0.1	(0.7)	1.0	0.3	0.5	(0.7)	1.5	1.5	1.4	(0.0)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63	-77	-63	(18)	107	77	50	(-10)	400	413	547	(-91)
실업자	-9	-5	3	(-3)	-15	3	0	(-14)	-91	-64	-48	(28)
비경활	-28	-23	-47	(-25)	-75	-68	-43	(23)	221	176	22	(104)
실업률	-0.1	0.0	0.0	(-0.1)	-0.3	0.0	0.0	(-0.2)	-2.0	-1.3	-1.0	(0.5)
고용률	0.2	0.0	0.3	(0.3)	1.1	0.8	0.5	(-0.1)	1.5	1.5	2.4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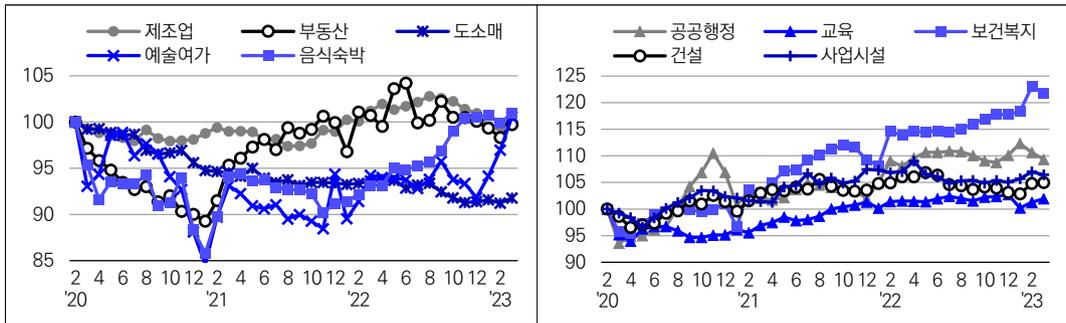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사업시설이 감소함. 반면 건설업은 정체됨. 제조업, 부동산,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 교육은 증가함.
- 도소매 및 부동산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47	-44	30	30	-30	29	29	1.9
광업	-6	-6	-5	1	0	1	1	23.7
제조업	-35	-27	-49	-67	1	27	-39	-0.9
전기·가스·증기	8	13	14	1	4	-3	2	2.8
수도·원료재생	-31	-28	-15	-5	7	8	9	6.3
건설업	-39	-4	-20	-5	39	4	37	1.8
도매 및 소매업	-61	-76	-66	7	-13	20	14	0.4
운수 및 창고업	-51	-44	-10	-33	28	2	-3	-0.2
숙박 및 음식점업	214	176	177	4	-20	24	8	0.4
정보통신업	72	43	65	31	2	8	41	4.2
금융 및 보험업	16	-6	24	29	-14	16	30	3.9
부동산업	14	-15	-5	-4	-6	8	-2	-0.3
전문·과학·기술	30	39	60	-9	6	8	5	0.4
사업시설관리지원	-21	1	-8	9	17	-7	19	1.3
공공행정·사회보장	71	18	14	25	-19	-14	-9	-0.7
교육서비스업	1	-3	8	-47	20	13	-15	-0.8
보건 및 사회복지	220	192	186	15	109	-28	95	3.4
예술·스포츠·여가	23	28	32	12	15	19	45	9.5
협회·단체·수리·기타	16	34	29	-8	14	-9	-3	-0.3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0	16	7	3	2	-10	-5	-5.9
국제 및 외국기관	4	4	2	1	0	-1	0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3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전환됨.
 - 상용직은 도소매,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운수창고 및 금융보험에서 증가 전환됨.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문과학,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 전환됨. 일용직은 농림어업에서 증가 전환됐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교육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575	470	497	41	9	138	188	1.2
임시직	-52	-128	-75	-125	252	-61	66	1.4
일용직	-70	-8	11	-31	63	43	76	6.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4	55	81	18	-6	19	32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	-5	10	-42	31	-54	-64	-1.5
무급가족종사자	-72	-72	-55	-11	-3	12	-2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농림어업	3	1	-2	-18	-15	-13	-11	-15	2	-14	-13	-18	10	14	58
제조업	10	7	-2	-7	-20	-27	-24	-16	-18	13	21	20	-11	-10	-12
건설업	64	42	33	-26	-8	-12	-62	-18	-28	-6	-13	-5	-2	3	-1
도소매	16	15	26	-46	-40	-34	9	-4	-1	-9	-13	-10	-9	-12	-30
운수창고	-33	-15	7	-19	-26	-29	5	3	8	8	10	11	-13	-16	-4
음식숙박	112	102	89	77	39	57	9	19	15	28	36	37	-6	-13	-13
정보통신	65	36	59	-5	-9	-3	-2	-1	-2	0	2	4	14	15	6
금융보험	3	-4	20	-1	-13	-6	-1	0	0	6	5	7	9	6	3
부동산	-1	-15	-4	13	11	10	1	-1	2	5	0	1	-3	-9	-14
전문과학기술	18	13	26	-9	-4	11	4	8	6	11	17	21	8	6	-3
사업관리지원	-27	-24	-42	-10	-12	2	-1	22	19	15	12	8	6	7	10
공공행정	64	48	30	9	-31	-15	-3	0	-1	-	-	-	-	-	-
교육서비스	25	17	4	-20	-19	-7	1	1	3	-6	-6	2	10	11	15
보건복지	219	202	199	0	-2	-17	-3	-13	-4	0	-1	3	5	7	7
예술스포츠	7	4	14	11	18	23	11	10	4	11	8	10	-19	-14	-15
협회단체	45	48	42	-1	-2	-12	-6	-10	1	-4	-8	-7	-23	0	-1
가구 내 고용	1	1	1	5	7	1	4	7	3	-	-	-	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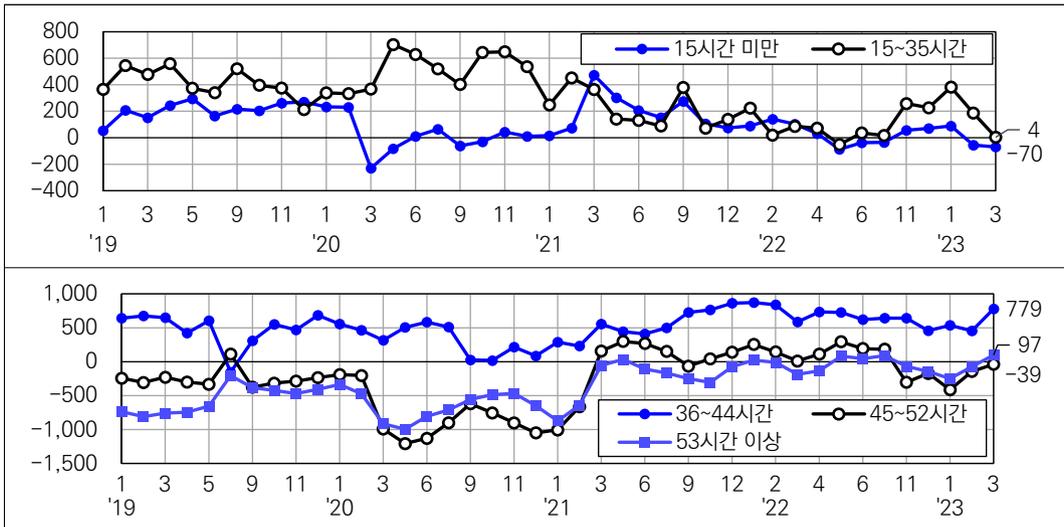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3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증가함.

－ 일시휴직자 및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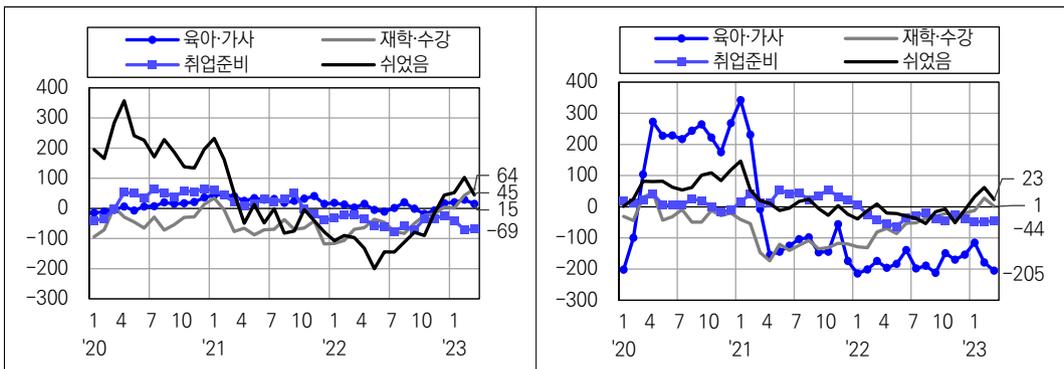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8만 8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2월 -10만 6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만 7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여성은 -30만 5천 명으로 '쉬었음' 및 '재학·수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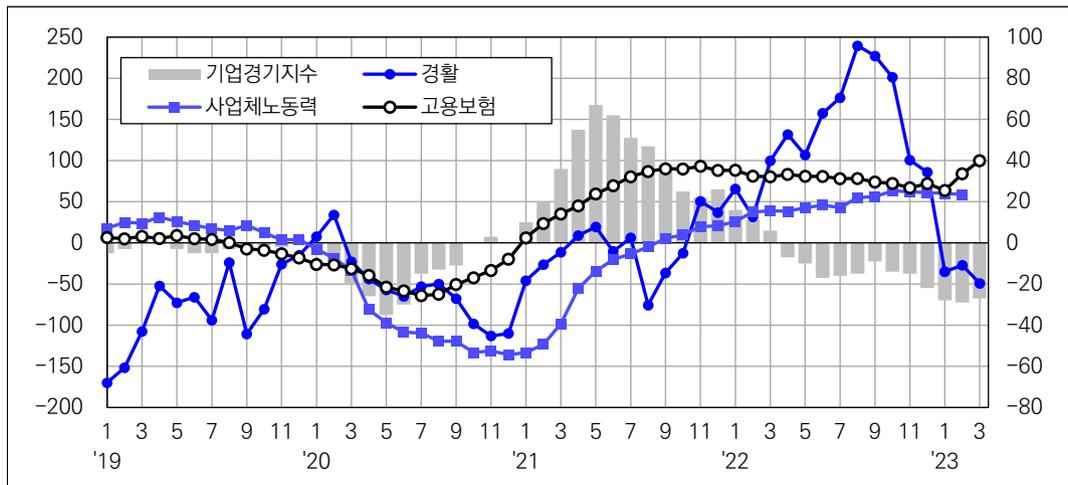
◆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 2023년 3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는 주로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7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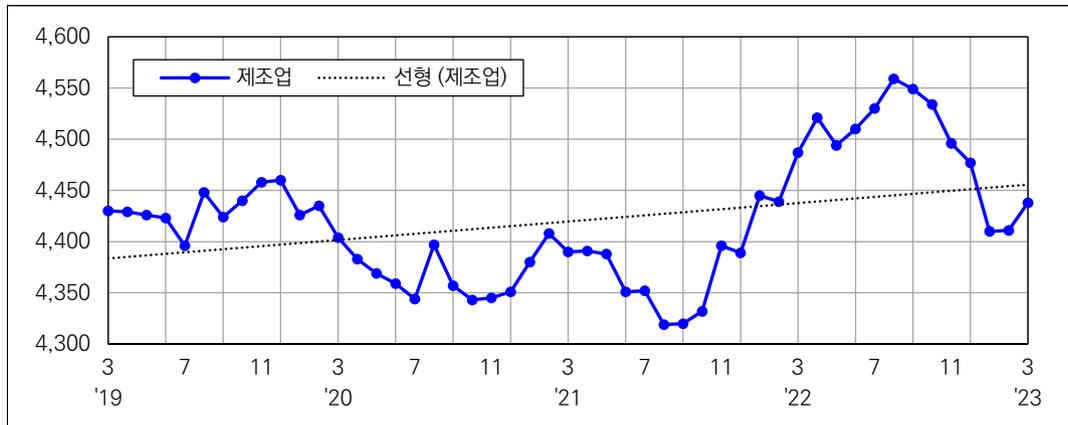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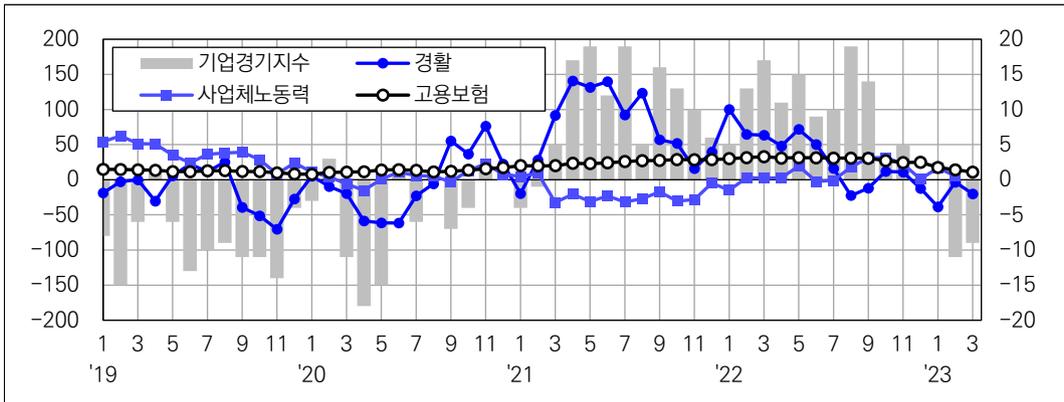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3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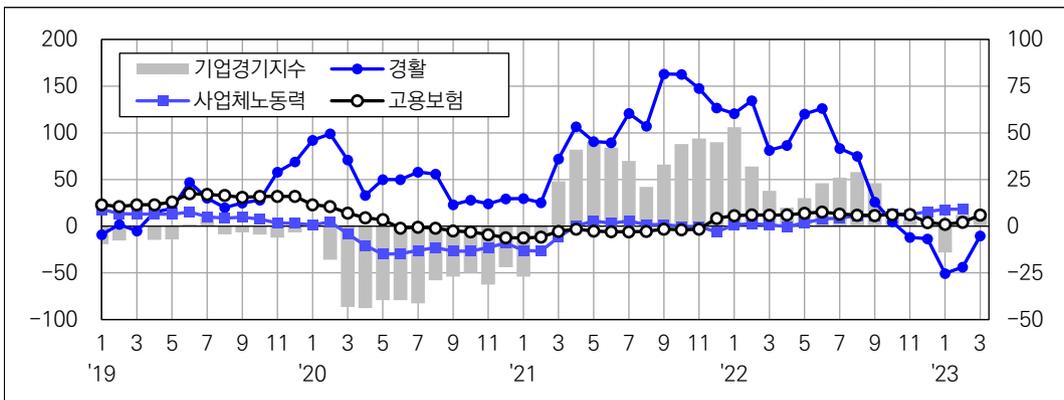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3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0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확대됨.
- (정보통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됨.
- (금융보험) 경찰 취업자는 증가 전환됨. 생산지수는 증가세를 유지함.
- (전문과학)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그 외 고용 지표는 정체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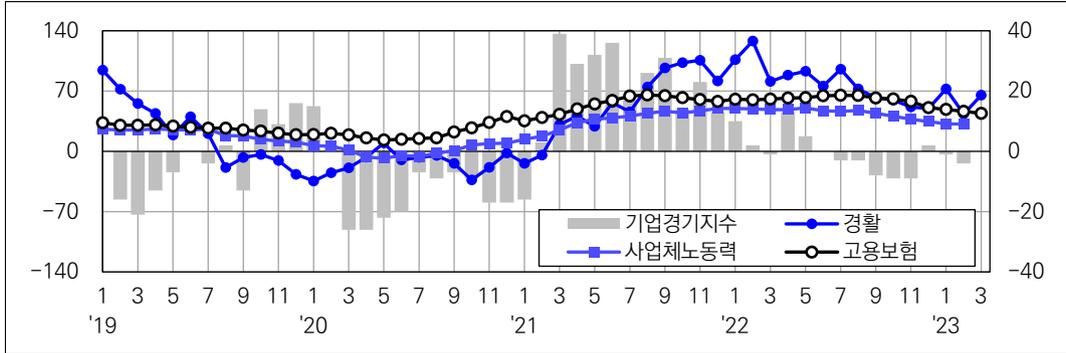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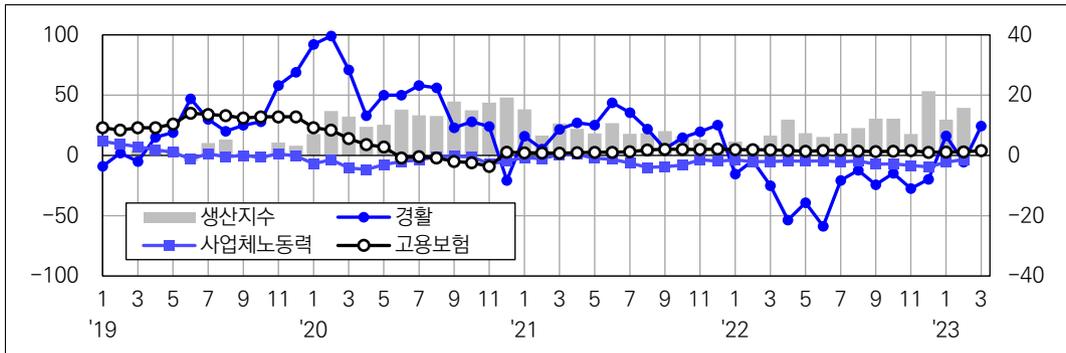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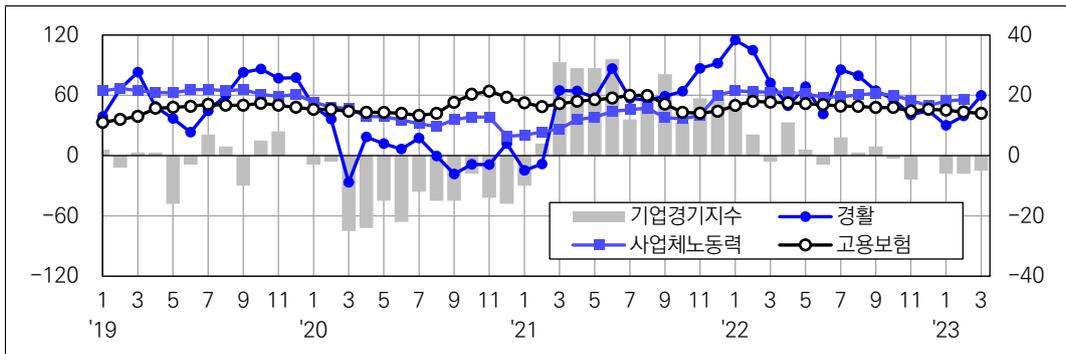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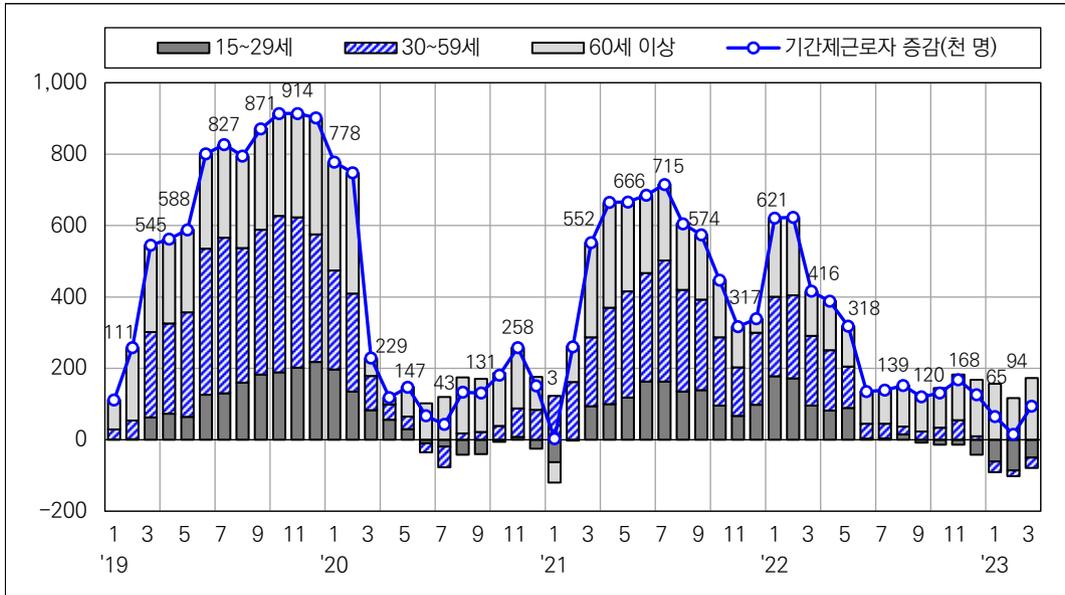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3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2023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69만 4천 원(-0.6%)임.
 - 2023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500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7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데는 특별급여의 전년도 증가에 따른 기저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10.1%)가 크게 감소한 영향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정보통신업(-30.0%), 전기, 가스, 증기 및 원료재생업(-29.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2%) 등이었으며, 특히 제조업(-11.3%) 중에서도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45.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3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5.0%) 등에서 특별급여 감소가 컸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5.2%)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근로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월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4,722 (21.8)	4,694 (-0.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5,020 (22.8)	5,007 (-0.3)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351 (4.2)	3,482 (3.9)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01 (1.9)	205 (2.1)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1,468 (118.4)	1,320 (-10.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82 (4.0)	1,774 (-0.4)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4.7 (3.6)	110.1 (5.2)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0.2	17.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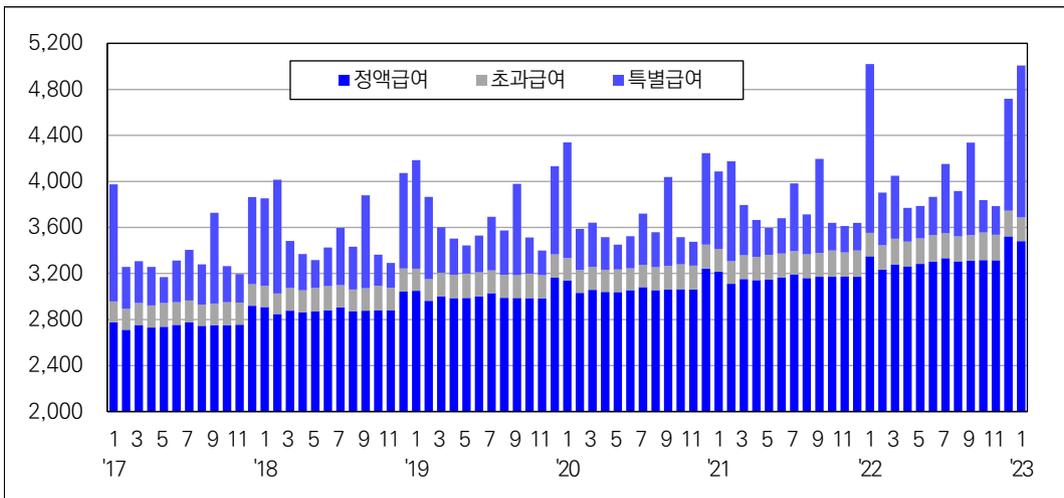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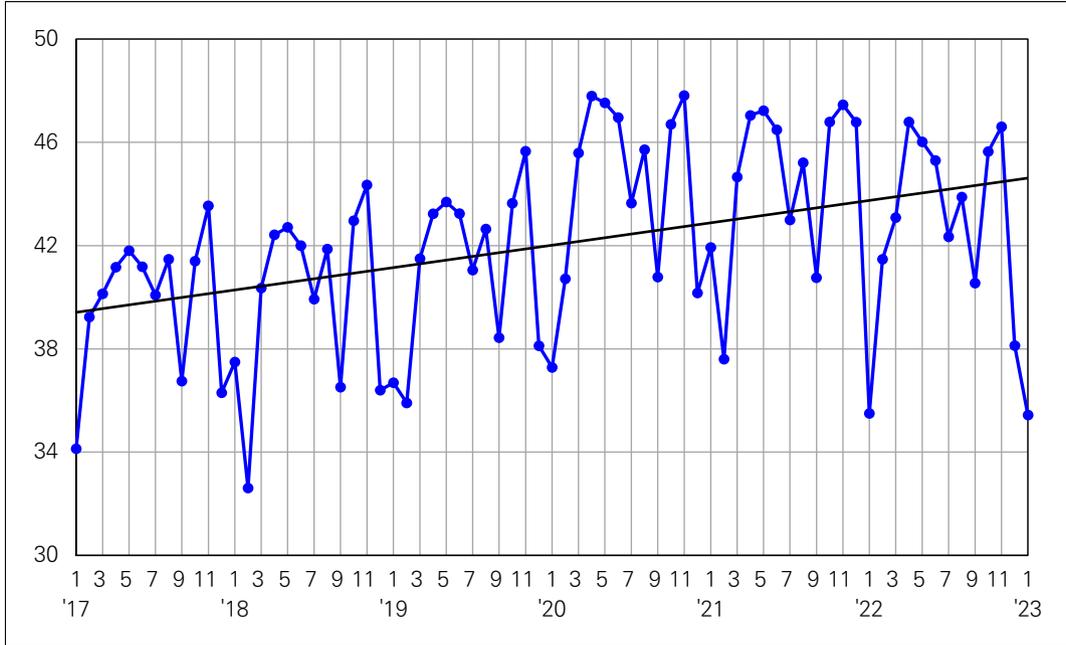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월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1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86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으나,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876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함.²⁾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폭도 크게 둔화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 영향에서 비롯됨. 전년도 특별급여가 증가했던 기저와 더불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의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함.
- 중소기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0.1% 증가에 그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 2022년 연간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대비 증가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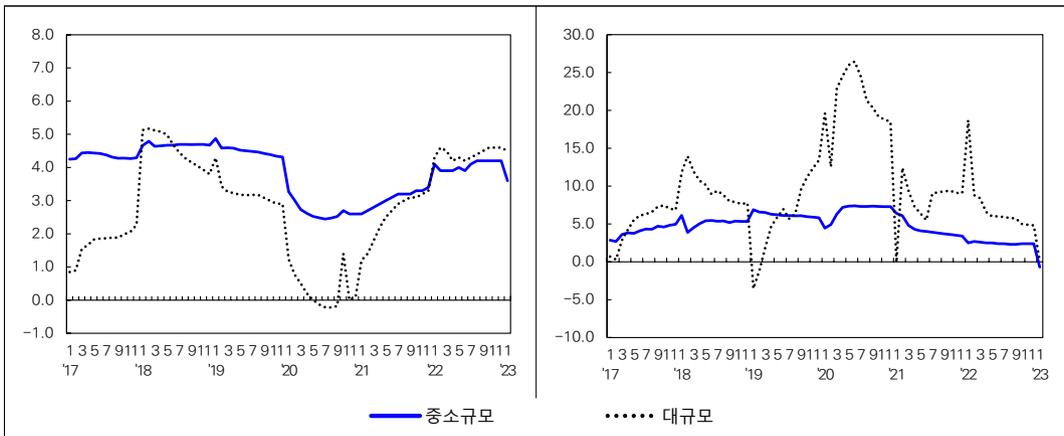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2	2022	2023
					1월	1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462 (4.4)	3,822 (15.1)	3,869 (1.2)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675 (4.7)	4,065 (16.0)	4,132 (1.6)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3,139 (4.2)	3,153 (4.1)	3,268 (3.6)
	초과급여	171 (-2.4)	176 (2.9)	186 (5.7)	169 (1.6)	167 (-1.1)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50 (8.7)	742 (141.5)	697 (-6.1)
	임시일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711 (2.4)	1,733 (2.5)	1,720 (-0.7)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922 (6.1)	9,248 (38.2)	8,769 (-5.2)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6,049 (6.4)	9,474 (39.0)	9,006 (-4.9)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4,155 (4.6)	4,270 (4.3)	4,462 (4.5)
	초과급여	340 (1.4)	357 (5.1)	377 (5.5)	351 (2.5)	379 (8.1)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516 (11.8)	4,853 (104.0)	4,164 (-14.2)
	임시일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321 (4.8)	2,563 (18.7)	2,565 (0.1)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정보통신업(-6.7%)에서 크게 감소

- 2023년 1월 임금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정보통신업(-6.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8%), 금융 및 보험업(-2.5%), 제조업(-2.2%) 등으로 나타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7.4%)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1%), 도매 및 소매업(5.7%) 부문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큰 상승폭을 보임.
- 2023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019만 8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35만 1천 원), 제조업(625만 8천 원) 순으로 나타남.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2만 2천 원)으로 나타남.

◆ 2022년 연간 산업별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에서 전년대비 증가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2	2022	2023
				1월	1월
전 산업	3,527	3,689 (4.6)	3,869 (4.9)	4,722 (21.8)	4,694(-0.6)
광업	4,325	4,415 (2.1)	4,608 (4.4)	5,180(12.8)	5,285(2.0)
제조업	3,990	4,239 (6.2)	4,484 (5.8)	6,401 (32.0)	6,258(-2.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907(2.3)	6,463(13.8)	6,351(-1.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4,168(1.8)	4,426(11.9)	4,575(3.4)
건설업	3,032	3,106 (2.4)	3,229(4.0)	3,546(12.6)	3,632(2.4)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773(6.3)	4,176(15.7)	4,413(5.7)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4,040(6.5)	4,362(13.0)	4,418(1.3)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1.4)	2,004(5.2)	2,050(7.1)	2,202(7.4)
정보통신업	4,613	4,796(4.0)	4,999(4.2)	6,367(28.2)	5,938(-6.7)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6.7)	7,324(5.2)	10,457(35.7)	10,198(-2.5)
부동산업	2,848	2,954(3.7)	3,086(4.5)	3,311(14.0)	3,347(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4.8)	5,376(5.3)	6,216(24.1)	5,978(-3.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3.4)	2,584(3.7)	2,780(11.8)	2,830(1.8)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435(2.4)	4,111(15.2)	4,167(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2.5)	3,122(3.6)	3,343(11.4)	3,373(0.9)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4.2)	3,077(2.8)	3,426(14.7)	3,588(4.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5.4)	2,832(4.9)	3,115(14.8)	3,337(7.1)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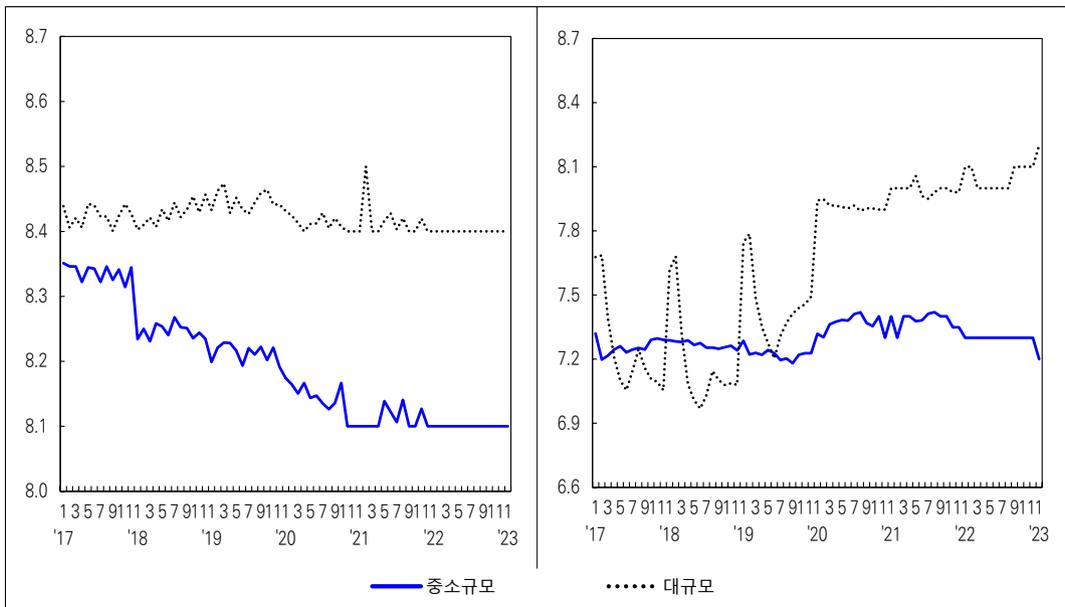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 2023년 1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6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에서 근로시간 감소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 영향으로 보임.
- 사업체 규모별 2023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3.0시간으로 3.3시간 감소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는 157.5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음.
 -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에서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2	2022	2023
					1월	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8.3(-1.2)	156.3(-0.3)	153.0(-2.1)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5.9(-1.1)	162.9(-0.2)	160.8(-1.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8.2(-1.2)	155.7(0.1)	154.2(-1.0)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0.0)	7.2(-4.0)	6.6(-8.3)
	임시일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6.4(-1.0)	99.0(0.5)	89.2(-9.9)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0.4(-1.2)	158.9(-0.9)	157.5(-0.9)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1.7(-1.0)	160.0(-0.6)	159.0(-0.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0.6(-1.1)	149.4(-0.4)	148.2(-0.8)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0(-0.9)	10.5(-4.5)	10.8(2.9)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5.0(-2.3)	128.0(-4.2)	119.5(-6.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금융 및 보험업(1.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9.3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66.5시간), 부동산업(165.6시간), 광업(164.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4시간)이었음.

◆ 2022년 연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운수 및 창고업(0.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감소(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2	2022	2023
				1월	1월
전 산업	160.6	160.7 (0.1)	158.7(-1.2)	156.7(-0.4)	153.8(-1.9)
광업	181.2	179.9(-0.7)	174.8(-2.8)	171.0(-4.9)	164.5(-3.8)
제조업	172.7	173.5(0.5)	171.1(-1.4)	169.1(-1.0)	166.5(-1.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58.6(-1.9)	165.8(0.5)	161.3(-2.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4.4(-1.4)	172.9(-1.3)	169.3(-2.1)
건설업	136.9	135.9(-0.7)	134.3(-1.2)	135.3(-0.1)	127.4(-5.8)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2.3(-0.9)	159.9(-0.4)	157.5(-1.5)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60.6(0.2)	158.2(1.5)	157.8(-0.3)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6.5(-1.3)	144.0(-0.1)	138.4(-3.9)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2.7(-0.9)	160.1(0.1)	159.1(-0.6)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9.8(-1.3)	156.5(-1.3)	158.2(1.1)
부동산업	173.2	171.8(-0.8)	169.4(-1.4)	166.3(-1.8)	165.6(-0.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0.3(-0.8)	158.3(0.1)	155.7(-1.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59.8(-1.4)	158.6(0.2)	156.5(-1.3)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6.1(-0.8)	131.9(1.4)	131.4(-0.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5.3(-1.9)	152.4(-0.8)	148.0(-2.9)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0.8(-1.2)	147.1(7.1)	146.5(-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0.3(-1.3)	159.5(-0.1)	158.9(-0.4)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7건
 -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8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2023년 3월 조정성립률 25.0%
 -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37.5%보다 12.5%p 낮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3	7	4	1	1	0	3	0	3	0	0	5	25.0%
2022. 3	8	11	3	0	3	5	2	3	1	2	3	37.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3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2건임.

〈표 2〉 2022년, 2023년 3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3	0	2	1	0	1	5
2022. 3	2	0	0	0	0	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80건
 - 3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39건)보다 4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4%(5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6%(153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3	180	208	39	16	118	4	16	15	414
2022. 3	139	184	37	8	95	2	22	20	44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3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4.3%(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5.7%(6건)를 차지함.

〈표 4〉 2022년, 2023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3	7	7	1	0	6	0	0	0	11
2022. 3	6	6	4	0	2	0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비정규노동센터,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발표

- 4월 11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회'를 열고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6%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85.6%), 2010년(87.1%), 2017년(85.5%) 각각 조사한 결과보다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민 대다수가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음.
- 노조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현재 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노조가 노조 간부나 일부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51.4%)이 가장 높았음.
-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21.8%)에 비해 10%포인트가량 하락했음.
-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6.1%였으며,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21.8%였음. 특히 20대 응답자 중 50.5%가 노조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다른 연령대는 긍정 평가가 모두 40%대에 머물렀음.
-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노조 중심활동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27.1%), '고용안정'(22.2%), '사회제도 개혁'(15.9%), '정치활동'(0.2%) 등이 뒤를 이었음.
- 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11.1%에 그쳤음. 향후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74.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68.3%에 달했음.

◆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 1천여 명, 민주노총 가입찬성 94%

- 3월 29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 공공운수노조 가입 안건이 9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총투표에는 선거권자의 7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안건 찬성률은 94%에 달했음.
- 이번 총투표를 통해 구교현 위원장, 이대근 부위원장, 김지수 사무국장 등 3기 지도부도 선출됐음.
- 3기 지도부는 산재보험 확대, 배달 알고리즘 공개, 공공적 산업관리 등을 공공운수노조의 운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2019년 출범한 라이더유니온은 조합원 1,000여 명 규모의 한국 최초 배달 라이더 노조로,

- 이듬해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 이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면서, 라이더유니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됐음.

◆ 엔씨소프트 노동조합 설립

- 4월 1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엔씨소프트지회는 노조 출범을 공식화했음. 엔씨소프트지회 별칭은 '우주정복'(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의하는 행복한 회사)임.
- 엔씨소프트 노조는 △고용 안정 △수평적인 조직문화 △투명한 평가 및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음.
-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엔씨소프트의 핵심 가치인 도전정신, 열정, 진정성이 훼손됐다”며 “가족경영에 기반을 둔 수직 관료적 문화는 실패와 악덕을 덮었고, 그 책임과 피해를 사우에게 전가했다. 고질적인 ‘상후하박’의 조직문화가 회사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음.
- 화학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웹젠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포스코ICT지회, LIG넥스원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는 대표적 게임개발사임. 대표작으로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인 리니지, 리니지2, 길드워시리즈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있음.

◆ 전력연맹 출범

- 4월 12일 전력연맹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설립대의원대회)가 열렸음.
- 전력연맹에는 5개 전력 그룹사 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전KDN 노동조합, 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이 참여했음.
- 전력연맹은 △경쟁과 시장원칙이 아닌 공공주도의 에너지전환 모색 △통합적 발전산업 구조 구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합리적인 원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꼽았음.
- 설립대의원대회에선 집행부 선거도 진행됐음. 초대 위원장엔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이 선출됐고 사무처장엔 남태섭 전력연맹 설립준비위원회 총괄팀장, 조직확대본부장은 박영준 전력노조 파견실장이 맡았음.
- 전력 그룹사 노동조합들은 2019년 4월 전력산업정책연대를 발족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해 왔음.

◆ 서울시 버스 노사, 2023년 임금 3.5% 인상 타결

- 3월 28일 서울시 버스 노사는 임금 3.5% 인상 등 2023년 임·단협을 타결했음.
-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전직 임금 시급 3.5% 인상 △정비직 월 임금총액(개근수당 제외) 3.5% 인상 △2024년 6월부터 5년간 복지기금 인상 △노사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제도 활용 등에 합의했음.
- 임금 인상률은 2023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임.

◆ '회계 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회계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음.
- 노동부는 4월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음.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차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노동부는 2월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음.
-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52곳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임.
- 52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8곳임. 나머지 7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임.
- 노동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고용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정부지침 위반”

- 4월 12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국 102곳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72곳 중 34곳(중복)이 운영지침을 위반했음. 복지관 27곳에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음.
- 6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겼고,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

- 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에 복지관 공간 일부를 임대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건립한 복지관의 경우 30곳 중 20곳(중복)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음. 아울러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음.
 - 노동부는 실태 확인 배경에 대해 "감사원, 언론 등에서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용도에 사용되거나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사용해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집행유예

-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음.
-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음.
- 2022년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음.
-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임.

◆ 주 60시간 이상 과로사 승인율 93.4% '심각'

- 4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족 급여 승인율은 93.4%에 달했음.
- 최근 4년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9년 89.6%,

- 2020년 93.5%, 2021년 91.8%, 2022년 93.4%로 평균 90%대를 유지했음.
- 2022년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상에서 주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했고, 과로로 인한 산재 승인율은 주 52시간에서 60시간 미만이 76.6%, 60시간 이상은 91.7%였음.
 -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혈관이나 심장 혈관의 혈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 질병임. 현대 직장인들의 주요 위험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함.

〈표 5〉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청구 건 업무시간별 승인 현황

(단위: 건,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신청	승인	불승인	승인율
2019년	52시간 미만	421	56	365	13.3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18	88	30	74.6
	60시간 이상	134	120	14	89.6
2020년	52시간 미만	403	75	328	18.6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18	91	27	77.1
	60시간 이상	93	87	6	93.5
2021년	52시간 미만	488	103	385	21.1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103	80	23	77.7
	60시간 이상	98	90	8	91.8
2022년	52시간 미만	382	66	316	17.3
	52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85	69	16	81.2
	60시간 이상	76	71	5	93.4

자료: 김주영 의원실.

◆ 2023년 1분기 고소작업대 사고 80% 증가

- 4월 12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했음. 이는 올해 1분기 중규모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 사망자가 30% 넘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임.
- 노동부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최근 사고사망이 다발하는 고소작업대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 1분기만 9명으로 전년(5명) 대비 80% 증가했음.
- 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지반침하 위험이 없다면 아웃

- 리거(지지대) 설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2·4주째 수요일에 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함.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